

고대 중국의 화장실 기록

명·청(明·淸)시대에 이미 화장실 문화가 있었다(?)



글 | 조의현
신본연구소 대표, 한화협 이사

〈厠所와 便器〉

무엇을 "厠所"라고 하는가? 글자의 뜻을 가지고 볼 때, 고대의 측(厠)은 가옥의 모양을 본뜬 엄(厂)과 곁이라는 뜻(側)에 해당하는 측(側)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측소(厠所)는 집 곁에 설치된 측실(側室)"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전적(典籍)에서는 측(厠)을 청(淸)이나 "混(섞일 혼)", 圉(뒷간 청)"이라고 해석하는데, 「說文」에서는 측(厠)은 청(淸)이다"라고 해석하고, 「석명(釋名)」에서는 "혼(混)은 탁(濁)이고, 청(淸)은 더러운 곳으로 마땅히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측소(厠所)는 또한 "偃(쓰러질 언)"으로 불리는데, 「장자(莊子)」, 「경상초(庚桑楚)」에서는 "관실자(觀室者: 집을 보러가는 사람)는 침모(寢廟)를 돌아다니며, 또한 언(偃)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주에는 "언(偃)은 병풍으로 둘러싸인 병축(屏厠)을 말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옛 사람들이 주거 시설을 돌아볼 때, 반드시 측소에 가서 검사를 했으며, 측소는 병풍 등을 이용해서 가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해석을 통해 측소의 최초의 모습과 작용을 대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는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측소의 건설과 사용에 있어 상당한 규범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준다. 「묵자(墨子)」, 「기치(旗幟)」에는 이 시기의 공공화장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길 밖에 가리개를 사용하여 둘레는 30보(步)길이에 일반적으로 12척(尺) 이상의 담을 쌓았다.

공공화장실은 한 대(漢代)에 발전하여 이미 전문적인 관리를 필요로 했다. 「태평광기(太平廣記) 권8, 유안(劉安)조에 실린 이야기에 따르면, 유안이 신선(神仙)이 되어 신선의 우두머리를 만났는데, 무례히 앉아서 큰 소리를 냈다. 이에 우두머리 가운데 우두머리가 유안이 불경하다고 하여 쫓아내면서 유안으로 하여금 "도측(都厠)으로 귀

양가서 3년간 지키라"고 했다. 비록 신화이지만 이를 통해 한 대의 도시 공공 화장실에 이미 일정한 규범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측소는 돼지우리(豬圈)와 관련성이 많아서, 돼지 사육과 비료 축적이 함께 중요했다. 「한서(漢書)」, 「무왕자전(武王子傳)」을 보면 "측소 가운데 돼지 무리들이 나타나 관서의 부업을 크게 망가뜨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한나라 시절 측소의 이러한 특징을 실증해주는 것이다.

또한 후한시대와 위진시대에 묘소에 수장되었던 명기(冥器: 수장품) 가운데, 정주(鄭州) 후장왕 199호 묘에서 출토되었던 회도(灰陶: 질그릇으로 만든 것) 돼지우리는 한(漢)대의 측소와 관련이 있고, 서주(徐州) 십리포고둔(十里鋪姑墩)에서 출토된 후한 말기의 측소와 돼지우리는 모두 돼지우리와 측소의 상관관계 및 돼지 사육과 비료 축적이 이미 비교적 표준적인 생활방식임을 증명해준다.

한 대(漢代)와 서로 상응하는 것은 송나라「몽량록(夢梁錄)」에 기록된 임안(臨安: 오늘날 杭州)의 전문적으로 분뇨를 수집하는 사람이다. 거리의 일반 백성들의 집에는 대부분 화장실의 분뇨처리 구멍이 없고 다만 나무로 만든 변기(馬桶)를 사용하여 매일 물꼬를 이용해 분뇨를 내버렸는데, 이를 "경각두(傾脚斗)"라고 했다. 이러한 "傾脚斗"에는 각각 담당 수집 인이 배당되어 서로 다른 것을 침탈하지 않았지만, 간혹 침탈할 경우 반드시 분노의 주인과 다툼이 발생했고, 심지어 관아에 가서 소송을 거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전문으로 분뇨를 수집하는 사람이 담당하는 구역이 존재하는 방식은 이미 직업의 성질을 띤 것으로, 공공화장실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공공 화장실의 건설과 관리가 잘 되었다는 사실로 송대(宋代) 도시 위생의 청결함은 유명했으며, "화광만로(花光滿路: 화려한 꽃이 길에 가득하다)"라는 명성까지 얻을 수 있었다.

다음은 중국에서 출판된 "고대중국찰기(古代中國札記)-伊永文, 中國社會出版社 1999~ 에 수록된 「축소와 변기(廁所便器)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고대 중국의 화장실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일 것 같아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흥미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사실들을 알게 되어 우리나라 화장실 변천과정을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새로운 왕조(王朝)마다 공공화장실 사업이 잘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명청시대(明清時代) 북경의 대로는는 공공화장실이 대단히 적어서, "수도에는 화장실이 없다"는 말까지 존재했다. 명대(明代) 왕사임(王思任)이 쓴 「문반소품(文飯小品)」은 수도(首都)에서 변소가기를 근심하여 새벽마다 아무데나 볼일을 보고 있다는 근심어린 구절이 있다.

청대(清代) 「연경잡기(燕京雜記)」에 따르면, 북경(北京)의 공공화장실에 들어가려는 자는 반드시 돈을 내야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부분 길거리에서 배설하고, 부녀들 역시 길가에다 변기의 오물을 버리곤 했다. 이에 소와 말의 분노까지 더해지니, 북경의 오물로 인한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하인호(夏仁虎)의 「구경쇄기(舊京瑣記)」에도, 당시 행인들이 노상방뇨가 심각하여 비록 엄격한 관리들의 단속이 있어도 이러한 퇴락한 풍조는 나아지지 않았고, 심지어 노상방뇨 하는 관원이 있을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다.

청나라 말기에 이르면 조금 나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서, 북경(北京)의 각 도로마다 화장실을 설치하고 마음대로 방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마차에는 변기를 장착하고 방울을 달아 표시했다. 「경화백이국기사(京華百二竹妓詞)」에도 벽 앞에 수북하게 쌓인 변에 대한 묘사와 이러한 것을 치우는 공공화장실 사업을 칭송하는 내용이 나온다.

거시적인 관심에서 보았을 때, 명청시대 남방의 공공위생은 북방보다 좋았던 것 같은데, 가령 심덕부(沈德符)의 「만력야획편(萬曆野獲編)」의 평가는 그 대표적인 예다. 물론 공공 화장실의 건설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평가의 중요한 원인이다. 명말청초(明末清初)의 작자미상 소설 「굴신경간귀성재주(掘新坑擿鬼成財主:새 구덩이를 파고 인색한 귀신이 부자가 되다)」에 담긴 절강성(浙江省) 호주부(湖州府) 오정현(烏程縣)의 향촌에서 이루어진 공공화장실의 건설, 관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청대 도시의 화장실 수는 비교적 많았다. 목(穆)태공은 도시에 가서 도로변마다 "분갱(糞坑:분노치리 구덩이)"이 있는 것을 보고 머리를 써서 화장실을 경영하여 돈을 벌었다. 그가 보기에 "도리어 다른 장사를 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둘째, 농촌의 화장실도 대단히 규범이 있었다. 목(穆)태공이 와장(瓦匠:기와 장인)을 불렀을 때, 그는 3군데의 큰 "분갱(糞坑)"마다 작은 담을 만들어 간격을 두었으며, 담에

는 장식을 하고 자신의 친척들을 불러 시화(詩畫)를 화장실 벽면에 새겨 넣도록 했다. 또한 목(穆)태공은 마을의 선생을 불러서 화장실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치작당(齒齋堂:나이가 많고 덕과 관직이 높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했다.

셋째, 화장실 장사를 위해 광고까지 했다. 목(穆)태공은 사람들이 자신의 화장실을 잘 모를까 염려하여 다시 선생에게 부탁하여 110장의 광고지(報條)를 써서 사방에 붙였다. 여기에는 목(穆)씨 집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은 향기를 내는 새로운 분갱(糞坑)입니다. 원근 각처의 군자(君子)께서 왕림하시길 삼가 바랍니다. 본 화장실은 휴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라는 문구가 써 있었다.

넷째, 화장실은 또한 미관과 편리함까지 요구했다. 목(穆)태공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휴지와 같은 부드러운 종이를 준비해 놓았다. 또한 그의 화장실에 있는 벽면은 알록달록하게 장식되어 있어 일단 새로운 분갱(糞坑)에 앉아 본 이는 마치 하나의 경치를 보는 것 같았다. 일부 여성들이 화장실에 방문하자 목(穆)태공은 다시 여성용 화장실을 만들기도 했다.

다섯째, 화장실의 분노를 다시 판매할 수 있었다. 명말청초(明末清初)의 「심씨농서(沈氏農書)」에 따르면, 항주(杭州)까지 가서 인분을 샀다는 기록이 있는데, 목(穆)태공의 인분 판매는 이러한 정황을 보여준다. 발농사를 하는 장호(莊戶:장원의 전호)가 그의 화장실에 인분을 사러 왔을 때, 매 단(担: 포대 단위)마다 은 1전(錢)을 받았는데, 일부는 땀감이나 쌀, 혹은 기름을 가지고 와서 교환하기도 했다.

여섯째, 화장실 문화가 이미 형성되었다. "그곳을 출입하는 남녀는 아침에 출근부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일별로 줄지어 출입했고 쉽 없이 왕래가 많았다." 목(穆)태공은 매일 "오경(五更: 새벽 3-5시)이면 일어나 화장지를 갖다 놓느라 밥 먹는 시간도 없었다"고 하니, 명청시대에 향촌의 개화된 분위기를 느끼게 해 준다.

가령 장종법(張宗法)은 「삼농기(三農紀)」에서 어떻게 좋은 화장실을 만드는지 기록했다.

"화장실의 앞문과 뒷문 및 기둥은 부엌과 우물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잡은 출입을 꺼리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세세하게 화장실의 위치를 규정하고 관리규정을 만들었는데, 청대 이미 화장실의 건설은 주거를 고려하여 주택의 미관을 기준으로 삼았다.